

# 대만의 大學教授任用制와 質 관리

## — 外國의 大學教授任用제도 (1) —

崔 榮 杓  
(KEDI 教育制度研究部長)

### 外國의 大學教授任用제도

1. 대만의 大學教授任用制와 質 관리
2. 일본
3. 미국
4. 영국
5. 독일
6. 프랑스

### 1. 거센 熱風 속의 大學 位相

최근 들어 대만의 대학은 소용들이 속에 휘말려 있다. 대학생들은 교정을 뛰쳐 나와 政治의 民主化를 요구하는 한편으로 大學의 自律化를 쟁취하기 위해 행동으로 대학 행정에 상당 부분 관여하려 하고 있다. 학생들은 방청한다고 하면서 대학 敎務會議에 참여하고 大字報를 통해 비난하는 이외에도 여러 부문에 직접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진보적인 교수 또한 각종 조직을 형성하여 大學改革을 요구하며 개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마디로 민주화의 거센 열풍에 휘말려 지금까지의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체제가 기반을 잃고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심한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유학하고 있던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매우 엄

정된 위상을 지켜 왔음을 생각할 때 今昔之感을 금할 수 없다.

이러한 민주화의 요구에 부응하여 대만 정부는 대학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行政院案으로 국회에 제출한 이 안은 1990년 초반부터 열린 심의를 거듭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결말이 나지 않은 상태이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중국인의 기질인지라 금년 안에도 결말이 날 것같지 않다.

본고에서 논하고자 하는 대학 교수 임용제의 상당 부분도 새롭게 개정될 것으로 예견된다. 그러나 이 내용들은 대학법에 포함된 사항이 아니라 행정 입법에 속하는 대학법 시행령의 성격을 띠고 있어 대학법이 개정·공포된 후에 더욱 활발히 논의되어 개정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존의 법규에 근거하여 논의하던 필자의 소박한 견해와 변화하는 상황들을 함께 소개하고자 한다.

### 2. 保守的인 大學教授任用制

대만에서는 대학의 교수도 초·중등 학교와 똑같이 敎師라 부른다. 교수는 우리의 正敎授(fulltime professor)만을 지칭하는데 교수 직급은 대단한 명예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승

진되기도 어렵다. 대학의 교사 직급은 우리와 같은 4 단계로 구성되고 있으나 내용은 다르다. 즉, 교수·부교수·전임강사(강사라 부름)·조교로 등급화되어 있어 조교수가 없는 대신에 조교를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직급 체제도 이번 대학법 개정시에 함께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와 같이 조교수 직급을 신설하는 대신 조교를 제외시키는 안이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대만의 대학 교수 임용에 관한 법규로는 母法인 대학법 이외에 ‘대학(교) 교사 초빙 대우 규정’ 그리고 ‘대학(교) 교사자격 심사규정 시행세칙’ 등이 있는데 이 법규 안에 신규 임용, 승진 임용, 재임용에 관한 내용을 모두 제시하고 있다.

### 1) 新規任用

대학교수는 해당 대학의 총(학)장이 초빙·임용한다. 단, 임용 이전에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먼저 단과대학 아래 설치되어 있는 학부(系라 함)의 주임 또는 대학원(研究所라 함)\*의 소장이 학장과 상의하여 초빙하고자 하는 자를 ‘教師評審委員會’에 추천한다. 이어서 이 위원회가 심의한 후 총(학)장에게 신규 임용해 줄 것을 제청하면 총(학)장이 최종적으로 교수·부교수·전임강사와 조교 중 해당하는 직급으로 초빙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따라서 자격만 갖추면 신규 임용이라 하여도 어느 직급으로든 임용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일련의 절차를 거쳐 신규 임용된 교수는 1년 이내에 그 자격에 대해 다시 대학 관할 기관인 교육부의 재심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교수 자격의 적합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마련된 이 과정은 교육부에 설치된 學術審議委員會가 담당한다.

대학교수의 신규 임용 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있는데 어느 직급으로 임용되든 이는 마찬가지이다. 즉, 이 기간은 試補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대만 사회에서 대학교수로 봉직하는 데 적합한 資質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 보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임용에 앞서 대학교수의 채용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도 공개적으로 공고하여 우수한 인재를 초빙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모집 내용은 교육부가 주관하며 매 3개월마다 就業機會名冊이라는 자료를 통해 제시되는데 관련 留學生이나 지식인에게는 해외 주재 대사관이 이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 주한 중화민국 대사관 文化參事處에서 보내 온 자료를 통해 살펴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초빙하고자 하는 전공 영역별로 요구하는 性別, 學歷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학의 연락처, 전화번호, 통신처 그리고 응모 일시와 마감 일자도 함께 적고 있다. 이처럼 국가와 대학이 적극적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대만이 공개 경쟁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점 이외에도 우수한 인재를 많이 포용하는 자가 다음 시대의 主角으로 떠오른다는 중국 사회의 풍토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 昇進任用

승진 임용에 관한 내용은 앞서 언급한 ‘교사자격 심사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전임강사·부교수·교수로의 승진 내용을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專任講師로 승진될 수 있는 기본적인 資格은 다음 네 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를 구비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대학원에서 碩士학위를 취득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 조교 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專門著作이 있는 자, 고급중학 교사 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전공 학과에 대한 연구가 깊고 專門著作물을 지닌 자, 學士학위 소지자로서 연구 기관에서의 연구 경력 혹은 관련 전문 직업을 6년 이상 가진 자로서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전문 저작이 있는 자라는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副教授로의 승진 자격 또한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를 구비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원에서 博士학위를 취득하고 우수한 성적과 전문 저작물을 가진 자, 전임강사 3년 이상인 자로서 근무 성

\* 단과대학(學院이라 함)의 하부 단위로 학부 성격인 系와 대학원인 研究所를 두고 있다. 대학원은 일반 대학원과 전문대학원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학부별로 설치하고 있다. 예컨대 教育系의 상급 단계에 教育研究所를 설치하고 있다.

적이 우수하고 전문 저작물이 있는 자 또는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연구 기관의 연구 경력 혹은 관련 전문 직업을 4년 이상 가진 자로서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전문 저작물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敎授로의 승진 자격은 훨씬 엄격하여 다음의 두 가지 경우에만 국한시키고 있다. 부교수 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중요한 저작물이 있는 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 기관에서의 연구 경력 혹은 유관 전문 직종의 경력 4년 이상을 지니고 創作·發明을 하여 學術上 주요 공헌을 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학술상 공헌은 실제로 교육부에 설치되어 있는 학술심의위원회 위원 1/2 이상의 출석에 3/4 이상의 동의로써 의결하고 있다.

위의 규정으로 볼 때 상급직으로 승진하는 것이 閉鎖的이지는 않다. 기간이 충족되고 연구 저작물이 있는 경우 승진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교수급 이상으로의 승진에 있어 박사학위가 없는 경우는 매우 어렵다. 필자가 유학한 國立政治大學 교육학부의 모 교수는 전임강사 경력 11년째로서 인정받을 만한 연구 활동이 있었음에도 승진하지 못하고 있었다. 중국 사회도 우리처럼學位를 중시하여 대학교수의 승진에 있어서는 박사학위가 거의 필수불가결한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위의 승진 규정은 현행의 교수 직급 체제가 개정될 예정이어서 조만간에 資格 내용도 함께 바뀔 것으로 보인다. 전임강사와 부교수 사이에 조교수 직급을 신설하는 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됨에 따라 자격 규정이 上向調整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학법 개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를 곧바로 부교수급에 임용하지 않고 조교수급에 임용하는 안이 제안되어 설득력있게 수용되고 있다. 박사학위자가 상당히 많아진 요인도 있지만, 부교수급 이상은 사회적으로 중진급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수·연구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상당히 수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타 직급으로의 승진 자격 규정도 함께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승진을 위한 자격 심사에서 연구·지작 활동에

대한 평가는 매우 엄격히 이루어지고 있다. 심사양식을 두고 評價標準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교수 직급별로 그 표준을 각각 달리하고 있다(뒤의 <표 1> 참조).

<표 1>에서 보듯이 연구·지작물은 직급별로 모두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교수급의 자격 요건에서는 創造的 見解나 發明活動 분야에 40점으로 제일 큰 비중을 두고 있는데 비해 전임강사급에 대해서는 5가지 영역을 모두 20점씩으로 하여 비중을 같이 하고 있다. 한편, 부교수급은 창조적 견해 또는 발명 활동에 제일 큰 비중을 두나 교수급보다는 낮은 30점을 配定하고 있으며 문자와 조직의 내용에는 15점을 배정하여 전임강사와 교수급의 中間을 택하고 있다.

실제 연구·지작물의 심사는 교육부에서 매우 엄격히 이루어진다고 한다. 어느 사회이고 승진시 합리적인 심사 규정을 두고 평가하지만,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審査의 質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대만이 대학교수의 승진시 자격 삼사를 엄격히 하고 있으며 그것도 교육부가 주관하고 있는 것은 보수적인 지식인 관리 체제, 중앙집권적인 대학 관리 체제 그리고 質을 중시하는 풍토 등이 複合的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본적으로 교육부가 대학을 관리하는 권한을 쥐고 있으며, 質을 중시하여 최근까지 국가가 박사학위를 심의하는 國家博士制度를 운영해 온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 3) 再任用

신규 임용 후 1년 간의 試補 기간이 끝나면 다시 1년 간에 걸쳐 재임용을 한다. 이후에는 매 2년마다 직급을 불문하고 재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편, 임용 기간 내에는 특별한 중대 사고가 있다고 할지라도 교육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대학이 임의로 임용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과실이 있다고 하여 대학 임의로 解職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대학교수의 질적인 통제 이외에도 대만 사회의 특성 때문으로 여겨진다. 국민당 정부 자체가 중국 대륙에서 태동하여 천도한 정부일 뿐만 아니라 대륙계 국민당 세력이 지배하고 있어 내부적으로 대만 독립을

<표 1> 대학교사 자격심사 및 저작물 평가 양식

대학(교) 교사 자격심사 의견표

직책명	학수	년	학기	자격번호	심사위원	
심사 의견	(1) 著作記述 :					
	(2) 관련학 평가 :					
심사 의견	(3) 평 점 :					
	문자	조직	참고 자료	창조의 진해· 발명	총점	
심사인 (사인)			심사일시	년 월 일		

대학(교) 교사 저작물 평가 표준

등 급	항 목	점수					총 점
		문 자	조 직	참고자료	관 점	창 조적 해· 명 발	
전 임 강 사		20	20	20	20	20	100
부 교 수		15	15	20	20	30	100
교 수		10	10	20	20	40	100

- \* 주 :
- 문자 영역에서는 어순관계, 어휘 그리고 서술이 간결한가에 중점.
  - 조직 영역은 서술이 체계적인가, 각 장·절의 분량이 적절하고 중심이 파악되어 있는가에 중점.
  - 참고자료 영역은 출처 기재 여부, 신뢰성, 1차자료인가에 중점.
  - 관점 영역은 관점이 정확한가, 학리의 근거가 있는가에 중점.
  - 창조적 견해·발명 영역은 이전 학설의 발전 여부, 독립적인 체계 형성 여부, 국가사회 발전에의 영향정도, 보편화의 여부, 실제 증명 여부 등에 중점.

주장하는 세력이 도사리고 있는 등 정치적인 갈등이 있다. 이때문에 대학교수 사회를 통제하지 못하고서는 정치적으로 안정을 추구하고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보수적인 재임용 제도는 현재 상당한 비난을 받고 있어 이번 대학법 개정이 끝나면 어떻게든 바뀔 것으로 예견된다. 진보적인 대학

교수협회가 정년을 보장하는 終身聘任制(tenure system)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데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 정년 보장제를 제안하는 根據로는 이 제도가 근본적으로 정치적 박해로부터 벗어나 교육·연구 활동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젊은 교수들이 눈치보자 않고 교육·연구 활동에 정진할 수 있게 함으로

서 국가와 사회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또한 교육은 百年樹人の 위대한 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신분 보장이 되어야 하며, 전통적으로 교사를 존중해 왔던 중국의 풍토를 보더라도 停年保障制가 타당하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 3. 結

대만의 현행 교수 임용제는 보수적이고 중앙 집권적인 대학 관리 체제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정치 민주화 추세, 대학의 자율화 운동으로 인해 대학이 主體가 되어 경영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 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역사적으로 볼 때, 건국 후 1930년까지 蔡元培 선생이 중국 교육을 주도했던 시기와 비슷하여 다시 옛 제도로 복귀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현재 논의중이지만 국립대학을 公法人으로 설립하여 학문과 연구의 자율성을 추구하도록 하며, 교수평의회를 결성하여 대학의 의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모습 등이 당시와 너무나도 흡사하기 때문이다. 다만 당시의 부패한 정치로부터 교육의 獨立을 추구하였던 데 대해 오늘날은 중앙집권적인 체제를 벗어나려는 것이 다를 뿐이다.

오늘날 우리 대학 사회도 많은 변모를 거듭하고 있다. 대학을 特殊法人化하고 정년 보장제도 머지 않아 시행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따라서 대만의 현재 동향과 앞으로의 대학교수 임용제 변화 상황은 미흡하나마 他山之石으로 삼을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때에 대만의 교수 임용제를 논의하게 되어 아쉬움을 느낀다. 다음 기회를 기약하면서 筆을 놓는다. ▣